

얼마 전 모 대학 도서관에서 기증행사가 있었다. 퇴직한 교수께서 자신이 박봉을 조개 모은 귀중한 자료들을 기증하는 행사였다. 그분의 자녀 중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아깝없이 모두 후학을 위해 기증했다. 평소에 한 사람 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낫다 했다. 그 대학이 박물관의 형태를 갖게 된 데는 이런 분들의 기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타인과 사회를 향한 배려에 대한 작은 감동이었다.

사회가 많이도 변하고, 우리들의 생활도 예전에 비해 꽤 풍족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들끼리는 말은 연말이나 들어보지 않은 연례행사였다. 지금의 시대는 주위의 힘든 이웃을 넘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의 빈곤문제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즐기게 될 것인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질병과 끼니걱정을 하는 안타까운 차상위 계층이 많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환경에 놓여 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성공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삶이 아닌가. 대부분 어찌저찌 잘 살게 되면 이웃에 굶는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무관심하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나눔 · 배려가 선진문화의 척도

어찌저 저 지나치게 되는 종로의 탐골공원을 옆을 지나칠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변에는 아직도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이 이리로 많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이 있지만 돌보지 않아 방치된 현실이다. 이런 분들을 자식이 있기에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급격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실직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한편으로 좀 산다는 부류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허세를 떠는 사람들을 본다. 이들 중에는 과거 고생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벌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우리는 이를 흠부라 한다. 이 단어 속에는 분명 고약한 뜻이 숨어있는데 무엇 때문일까. 가난했던 어제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간혹 지면은 대학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을 만난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분들 중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은 고사하고 경제적으로 그리 운 좋지 않은 할머니들이 많다. 삶이

더 저리고 아팠다. 보통 병문안을 가면 어서 일어나서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시자는 희망에 찬 이야기를 나누고 온다. 하지만, 너무 연료하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그저 고맙스런지 않게 몸이라도 편한히 생을 마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30분 정도 병원에 있다가 다시 인천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시다림 기도를 했다. 6시쯤 시작된 기도가 9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공양주 보살님과 함께했던 옛 생각이 눈앞이 자꾸만 흐려져서 애를 먹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했다.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지만, 아직 갈 곳이 한 곳 더 남았다. 빵집에 가서 생강 2시간 정도 기도를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집에 돌아와 공양하고 매 주가는 노인병원으로 가서 할머니들을 보았다.

우연하게 인연이 되어 찾아가게 된 병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팔손이 다 없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지릿했었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불교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생의 끝자락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려니 마음이 어느 때보다

질로 평생을 모은 돈이나, 미성 하나가 전부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본다.

예전에 동네의 한 집에 제사가 들면 여나루 구의 이웃들이 그 집 제사날을 기억하고 밤이 되면 등을 켜 처마 밑에 매달아두었다. 석유가 귀하던 시절이라 여간해서는 등을 켜지 않는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석유등을 켜 처마 끝에 매달아 두었던 것은 철쭉 같은 어둠 속에 밤합지를 이고 길을 더듬어 제사 밥을 가져올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였다. 밥술에 얹어 장땀을 하나 만들어도 담 너머 이웃을 불러 한 조각씩 나눠먹던 순박한 인심, 따뜻한 정은 배고픈 시절에 그래도 사는 여유와 맛이 담긴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밥 한 끼, 참 귀하고도 고마웠던 한 끼 밥의 기억을 아직도 가슴속에 아련히 담고 있다. 누구나 하루 세 끼 걱정은 면하고 사는 요즘, 이웃에 대한 작은 나눔과 배려는 분명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뜻도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평상심(平常心)이다. 흔들리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진 빛을 감으라는 가르침이다. 어느 날 문득 부처의 생각이 우리나라를 때 세속적인 갈등 없이 한 번쯤 실천해볼까 어렵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

밥(사랑)퍼주는 나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판부 실시간 뉴스 핫뉴스 www.buddhanews.com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www.buddhanews.com
	쇼핑몰 출판사점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2월의 테마-유종의 미

지난 11월 중순쯤의 어느 날이다. 저녁 늦게 신도분이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일 오전에 입관이 있으니 시다림을 부탁한다는 전화였다. 공교롭게도 곧이어 처음 집에 출가했을 때 공양주 보살님으로 계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도 받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아침 일찍부터 시다림을 모시려고 서울 모 병원 장례식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돌아가신 분 영정에 향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 정성껏 2시간 정도 기도를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집에 돌아와 공양하고 매 주가는 노인병원으로 가서 할머니들을 보았다.

우연하게 인연이 되어 찾아가게 된 병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팔손이 다 없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지릿했었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불교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생의 끝자락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려니 마음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란?

더 저리고 아팠다. 보통 병문안을 가면 어서 일어나서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시자는 희망에 찬 이야기를 나누고 온다. 하지만, 너무 연료하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그저 고맙스런지 않게 몸이라도 편한히 생을 마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30분 정도 병원에 있다가 다시 인천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시다림 기도를 했다. 6시쯤 시작된 기도가 9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공양주 보살님과 함께했던 옛 생각이 눈앞이 자꾸만 흐려져서 애를 먹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했다.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지만, 아직 갈 곳이 한 곳 더 남았다. 빵집에 가서 생강 2시간 정도 기도를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집에 돌아와 공양하고 매 주가는 노인병원으로 가서 할머니들을 보았다.

우연하게 인연이 되어 찾아가게 된 병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팔손이 다 없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지릿했었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불교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생의 끝자락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려니 마음이 어느 때보다

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죽는다. 잘 사는 것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쳐도 자신의 삶을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를 알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도를 깨달아 생사에 자재하게 되면 자신이 언제 떠날지 알게 되겠지만, 절대다수는 그저 오늘은 아닐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그저 일상에 묻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시어 멋진 답을 제시하고 아름답게 그 끝을 마무리하셨다.

부처님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든 구절 하나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전하라는 말이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좋은 가르침. 때때로 중간이 다 좋다면 굳이 끝이 아름다울 필요가 있을까? 부처님은 일체가 고라 하셨지만, 이 가르침을 다시 잘 곰씹어 보면 태어남도 좋고, 늙고 병들어 감도 좋다. 그리고 생을 마친도 좋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태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조선시대 진주, 연죽 인재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제품

MSM Glucosoid & Omega3 Cream

MSM Glucosoid Cream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뻠잡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10(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에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퐁치 아픈이 치명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활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가 뻐울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보는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